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4월 2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한인들도 적극 동참

한기홍 목사, 워싱턴DC 기도회에 한인 교계 대표로 초청받아

오는 5월 7일은 미국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64회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이다. 미국 전역 약 4만 2천여 곳에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Lord, Hear Our Cry, 왕상 8:28)란 주제로 기도회가 열릴 예정이다. 올해 남가주 교계는 은혜한인교회에서 저녁 7시 30분 연합기도회를 연다.

지난해 11월 11일 남가주 교계가 연합해 다민족기도회에 참여한 이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JAMA는 이 기도 운동을 미국 내 주요 도시로 확산하는 중이다. JAMA의 강순영 대표는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역시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에는 회개와 부흥, 가정과 학교, 국가 지도자들, 교회와 문화, 한국과 선교를 위해 각각 기도하며, 20여 명의 대표 기도 인도자들이 참여한다. 박성규(주님세운교회)·박용덕(남가주빛나리교회)·이서(미주비전교회)·정우성(남가주광영교회)·남성수(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목사 등 대부분 1세 목회자들이 기도 인도하지만, 이영복(로스앤젤레스 KCCC 대표)·스티브 최

(크로스웨이교회) 목사 등 2세 목회자들, 제프 유(사우스랜드교회)·윌리엄 정(감사한인교회) 목사 등 2세 청소년 목회자들도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이번 기도자들 중에는 정기정 목사(파이어크루세이드), 박용수 전도사(지저스홀릭무브먼트), 더글라스 김 집사(HYM), 최성민 목사(은혜한인교회) 등 청년 사역자들도 있고, 특별히 가정사역단체인 CMF의 김철민 장로도 참여한다. 설교자는 한기홍 목사다.

주최측은 자녀 세대들이 기도회에 참석해 부모와 함께 기도할 권하고 있으며, 행사 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중보기도회에도 참여를 당부했다. 또 올해 기도회에는 남가주 지역의 선출직 정치인들도 초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미기총의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한인 1세 가운데 사상 최초로 워싱턴DC 연방의회 캐논 하우스오피스빌딩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 행사에 초청됐다.

전 미국 4만 2천여 곳의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가 기도의 날 본부는, 지난 다민족 기도회를 통해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존 본샤인 부의장이 직접 한 목사를 미주 한인 교계 대표 자격

로 초청했다.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기도회에서, 한 목사는 약 7분간 기도를 인도하게 된다. 한 목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서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살릴 길은 회개 뿐임을 강조하고 미국 사회 각 분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길 기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 기도의 날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기한 후, 1952년 의회의 결의에 따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해 법으로 제정됐다. 무신론자들에게 소송을 당해 2010년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2011년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적극적으로 부활했다. 당시 위헌 판결 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 이 행사가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올해 남가주 기도 행사는 JAMA·OC교협·미기총이 주관하며, OC 목사회·원로목사회·여성목사회·평신도연합회·장로협의회와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등 교계 단체, 미스바철야기도회·남가주청년네트워크·KCCC·파이어크루세이드·HYM 등 청년 중심 단체, 가정사역단체 CMF와 청소년 선교단체 지저스홀릭무브먼트가 주최한다.

김준형 기자



프레즈노 지역 몽족 어린이합창단이 전통의상을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몽족 어린이들에게 리코더 오케스트라 꿈 심어줘요

제4회 한아름 여성 및 선교합창단 연주회 개최

미주 내 몽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몽족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제 4회 한아름 여성 및 선교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9일(주일)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특별히 몽족 어린이들에게 작은 꿈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얻어진 모든 수익금은 그 아이들에게 '리코더(recoder)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주는 데에 사용될 예정이다. 멀리 프레즈노에서 달려온 몽족 어린이합창단은 몽족 고유의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해 큰 감동을 주었다.

→ 2면에 계속

성경 전권 번역된 언어 전체 43%에 불과

아직 세계 언어의 57%로는 완전한 성경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성서공회는 최근 성경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 성경 전권이 번역된 언어는 전 세계 언어 가운데 43%에 불과하고 나머지 57%의 언어로는 성경 일부만이 번역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72%는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미국성서공회는 남침례교(SBC) 산하 기독교 전문 리서치 기관 바나그룹과 함께 2,000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에 존재하는 6,901개 언어 가운데 1,859개 언어, 즉 31%의 언어로는 아직 성경 번역이 시작되지조차 않았으며, 26%에 달하는 2,195

개 언어로는 성경 번역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 성경 전권에 대한 번역이 마무리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Wycliffe Bible Translators)의 밥 크레슨 회장은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속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다고 말했다.

크레슨 회장은 "2,195개 언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번역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2025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다음 주는 정기 휴간입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심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인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가주 몽족 6만 명 한인들이 섬긴다

몽족 선교 위한 음악회 성황리에

→1면으로부터 계속 양경선 목사(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한아름여성합창단의 이화월 단장과 한아름선교합창단의 김병조 단장의 인사말, 윤태환 목사(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의 기도, 몽족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아름여성합창단(지휘 김명환)과 한아름선교합창단(지휘 이경호 목사)은 각각 '주님은 나의 목자' '주는 반석' 등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겼다. 노형건 선교사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등의 특별 찬송으로 섬겼다. 멀리 프레즈노에서 달려온 몽족 어린이합창단은 몽족 고유의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이번 음악회의 감동을 맡은 이경호 목사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안녕 오케스트라'를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영감을 얻어 이번 연주회를 준비하게 됐다. 물질적인 후원도 좋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이 아이들에게 리코더를 가르치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주면 작으나마 더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몽족선교에 대한 우리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리코더는 마치 사람의 목소리 처럼 베이스, 엘토, 테너, 소프라노 등의 음높이로 구성된 악기이다. 나무로 만든 것은 비싸지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비교적 저렴

하다. 또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이다.

몽족은 원래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 태국 국경의 산악지대에서 2,000년 이상 살아온 소수민족이다. 몽족은 베트남 전쟁 때 독립을 조건으로 미군편에서 협력했으나 1973년 미군이 패전과 함께 철수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리고 그 일부가 미국으로 망명해 소수 커뮤니티를 이루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몽족이 약 26만 명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프레즈노 지역의 약 6만명을 포함, 미네소타주의 세인트폴, 밀워키, 미니애폴리스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한편, 남가주의 한인교회들 중에도 프레즈노에 거주하고 있는 몽족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다. 매달 첫째주에는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둘째주에는 LA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 셋째주에는 산호세뉴비전교회(담임 이진수 목사), 그리고 넷째주에는 소망장로교회(담임 성요셉 목사)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29일-7월 2일까지는 소망장로교회 단기선교팀이, 8월 초에는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 단기선교팀이 각각 몽족 선교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리고 5월 2일 경에는 프레즈노 몽족 어린이들 약 30명이 이곳 LA를 찾을 예정이다. 몽족 선교와 관련한 후원 및 참여 문의로는 소망장로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성요셉 목사에게 하면 된다.

전화) 213-487-2481

이영인 기자



새언약학교 학부모회가 목회자·선교자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했다.

새언약학교 목회자·선교자 자녀 위한 골프 대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사립 학교인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의 학부모회가 목회자·선교자 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4회 골프 토너먼트를 지난 4

월 18일 정오 웨스트릿지 골프클럽에서 개최했다. 이 토너먼트에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박찬호 선수를 비롯해 약 150명이 19개 팀으로 나뉘어 참여했

다. 새언약학교는 매년 10만불 상당의 장학금을 목회자와 선교자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약 10%에 달한다.

벤추라 새생명교회 담임에 승광철 목사 취임



승광철 목사가 새생명교회 담임으로 취임했다. 취임 예배 후 주요 식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으로부터 다섯번째가 승광철 목사.

올해로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는 새생명교회(벤추라카운티 소재)가 지난 29일 오후 5시 승광철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승광철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찬양사역자 이천 목사와 ANC 온누리교회 찬양팀의 찬양,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의 대표기도, 경희대 음대 동문들의 특송, 유진소 목사(ANC온누리교회 담임)의 설교, 새생명중창단의 헌금 특송, 박성민 교수(아주사대학 부총장)의 권면, 박민규 목사(벤추라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김정대 목사(동부사랑의교회)의 축사, 승광철 목사의 담사, 공광국 목사(CRC GLA노회 한인 코디네이터)의 축도로 이

어졌다.

유진소 목사는 골1장1-2절을 본문으로 '교회의 꿈'이라는 설교에서 '교회의 꿈은 예수님의 꿈이었고, 사도들 역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골로새서는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그 안에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 교회를 향한 불타는 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영적 성숙을 이끌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교수는 권면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기대"라며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도들을 향해 사랑과 정성을 다하

라"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박민규 목사는 "목자는 양의 신음과 울음으로 양의 상태를 안다"며 "영혼의 상태를 헤아리고, 어떤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목자가 되라"고 했다.

또 김정대 목사는 "승광철 목사와는 30년 친구이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행복을 전달해 주는 화평의 전달자"라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사를 전한 승광철 목사는 "1년 반 동안 담임목사 없이 사백 제단을 쌓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 성도들을 보았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승광철 담임목사는 고등학생 시절 음악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음악 공부를 결심, 경희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했다. 1997년 아주사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3년 ECA 교단(Evangelical Church Alliance)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03년 산호세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사역했고 2008년 ANC온누리교회에서 7년간 사역하다 2015년 1월부터 새생명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온하늘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와 음악회

창립 3주년을 맞이한 LA온하늘교회가 오는 4월 26일 감사예배를 드리고 음악회를 연다. 1부는 연제선 담임목사의 인도로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박성민 교수가 말씀을 전한다. 대니얼 뉴먼 교수가 축사를 전하고 박상천 교수, 강진수 목사, 이태근 목사가 격려사를 전한다. 2

부 음악회에서는 그레이스미션과 이어(지휘 오위영, 피아노 김지환), 테너 오위영, 메조소프라노 조지영, 바이올리니스트 Peter Bak, CCM그룹 Audience of One이 공연을 한다. 교회 주소는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이며 전화는 818-983-9024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Simitri bizhub MarketPlace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세상적 성공이 필수?

남가주 청년 연합 부흥 운동 HYM, 제 32회 집회 열려



HYM의 제 32회 청년 연합 집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18일, 19일 양일간 매일 약 100여 명의 청년,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석했다.

청년들의 연합 부흥 운동인 HYM의 제32회 집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18일, 19일 양일간 열렸다. 강사는 에리조나 등대교회의 담임 송민우 목사였다. 송 목사는 이들 간의 집회에서 “내 삶의 목적”에 관해 연속해서 말씀을 전했다.

첫날 집회에서 송 목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게 되는 죄 사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증인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사명을 갖게 된다. 이 사명은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은혜이며 사랑이고 특권”이라

고 강조했다. 다음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목사는 “말겨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살라. 주님께 하듯 사람들과 섬기고 맡은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말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세상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다.

HYM은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의 약자로 매년 두 차례 청년 연합 집회를 통해 방황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전해 왔다. 1999년 첫 집회를 연 이래 올해가 32회 째를 맞이하며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연합 운동으로 성장했다. 요즘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은혜한인교회 분당 2층에서 청년들의 영적 각성과 성령의 부흥을 기도하는 모임을 열고 있다. 문의) 더글라스 김 대표, 714-393-5135 김준형 기자

OC 교회연합 대각성 전도집회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메시지를 전하는 이신웅 목사

오렌지카운티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가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 아래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렸다. 강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신웅 목사(신길교회)였다. 그는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오렌지중앙성결교회(이경원 목사),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에서 열린 3번의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전도와 헌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날 집회에서 이 목사는 복음을 설명했다. 그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음은 이 땅 위의 변영이나 축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고 회복되면 이 땅 위에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며 복음으로 초대했다.

마지막날 집회에서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전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 답하신 장면(마16:18)이 설교 본문이었다. 이 목사는 “교회가 건물이나 사람”임을 설명한 후 “베드로처럼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서 “직장, 가정과 학교 등 삶의 처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자”고 했다. 이 행사는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목사회·여성목사회·기독교평신도연합회·장로협의회·원로목사회·원로성직자회 등의 단체들이 협력했다. 김기동 교협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며 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한편, 일련의 행사에 앞서서 17일 오전에는 총만교회(김기동 목사)에서 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부흥과 회복을 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얼바인 아름다운교회

살아있는 예배와 제자 양육,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4대 사명 중심으로 전진



이동준 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는 15년이란 세월 속에 많은 회복과 성장을 거쳐 지금의 얼바인 지역으로 새 성전을 구입해 이전했다.

“부흥과 회복을 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모토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역동적으로 전진하는 교회이다. 살아있는 예배와 제자

양육, 이민가정과 이민 2세를 넘어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의 4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

이동준 담임목사는 지난 18일 토요일 새벽예배에서 갈라디아서 1장 11-24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이단 사상과 변질된 복음으로 위기가 왔다”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듣기에 편하고 좋은 복음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교회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동준 목사는 1)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것 2)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설 것 3)예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권면했다.

얼바인 아름다운교회는 불신자를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주 애프터 스쿨, 태권도, 레고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이 에스더 사모는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

는 줄 안다. 또 교회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주신 이유도 교육의 사명을 다하라고 주신 줄 믿는다”면서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바인 아름다운교회는 주일예배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에 드리고, 유스 예배가 오전 11시, 청년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다.

주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전화) 949-250-1111
이메일) rcsch1999@gmail.com
문순현 기자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 면세 세미나

선교와목회를위한정보센터가 비영리 단체 설립 및 면세, 세금 보고와 관련해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

장소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내 강의실 GL20이며 1차 세미나는 4월 24일, 2차 세미나는 5월 1일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이다. 강사는 그레이스미션대 행정차장이며 교회행정학 교수인 제임스 구 교수다.

강의는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비영리 단체의 종류, 비영리 단체의 설립 절차, 면세 신청, 세금 보고 등으로 이뤄진다.

문의) 714-393-4595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총판전화: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8월말~이벤트~서북인명당)

T,213,453,6624 (이리향마케팅부)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	\$90	240g 소비자가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555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28

64TH ANNUAL OBSERVANCE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장소: 은혜한인교회
시간: 저녁 7시 30분

www.NationalDayofPrayer.org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자초하는 이 나라의 행보와 영적으로 침몰하는 이 나라를 보며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게될 우리나라 미국을 위해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이 광고를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을 꼭 오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Lord, hear Our C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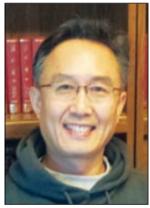
주최: OC 한인목사회 · OC 원로목사회 · OC 여성목사회 · OC 평신도연합회 · OC 장로협의회 · 미스비철야기도회
남가주 청년네트워크 · KCCC · 미주성서화운동본부 · CMF · Fire Crusade · HYM · Jesusholic Movement
주관: JAMA, OC 기독교교회협의회, 미주기독교총연합회

1세와 2세가 함께모이며 모든 순서가 동시통역됩니다.

www.jamaprayr.com

·여승훈 목사의 목상칼럼

본전치기 인생



여승훈 목사
복음주의 칼럼니스트

요즈음은 사라졌지만 그 옛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 가운데 한가지 '다마치기'가 기억난다. 약간 추운 겨울날 양지 바르고 평평한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다마치기를 즐겼었다. 한참 다마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쪽으로 모여 앉아서 '짤짤이'를 한다. 짤짤이는 두 주먹 속에 다마를 넣고 흔들 때 나는 소리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짤짤이를 하면 일반 다마치기할 때보다 판이 커진다. 가지고 있던 다마를 다 잃어 버리면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마를 사와서 다시 한다. 어느정도 잃으면 멈출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이유는 최소한 '본전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본전치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익과 손해가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다. 수치로 따지면 제로다.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짤짤이를 하다가 잃으면 본전 생각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더 큰 잃음을 초래하게 되는 데도 말이다.

본전 생각이 인생 낭패 보는 사람들이 굉장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자신이 잃어버린 재물과 평판들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지내왔다. 최소한 본전은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과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을 내려놓지 못한다. 항상 잃어 버렸다고, 손해 보았다고,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그 분 스스로 더욱 힘들어지게 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해마다 밀 200만 섬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부자였다. 그러나 엄청난 부를 유산으로 물려 받은 것과는 달리 톨스토이는 매우 간소한 삶을 살았다. 이로 인해 생긴 아내와의 불화가 견딜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집을 떠난 며칠 뒤 폐렴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톨스토이가 생애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유언은 '하늘이 꾸미신 그대로 거두라'였다. 또한 톨스토이는 죽기 며칠 전인 1910년 11월 1일에 자신의 딸 사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존재한다..."

톨스토이의 말을 되새기다 보면 '본전치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끄러워진다. 본전치기 생각의 오해의 뿌리를 톨스토이

의 한마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그렇다.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 오해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이 가진 소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구약 성경 욥기서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욥의 고백으로부터 들여보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나..."(욥기서 1:21)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증 집회에서 종종 듣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간증의 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답서 인정을 하면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서 어느나 모르느냐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현재 당신이 만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효력이 나타날 만큼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되리라 본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마음으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소유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임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 일어난 일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

정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임이 일어날 때 고난의 깊은 터널을 빠져 나갈 돌파구가 열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돌파구를 만들지 못해 고통스러한다. 또 복수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해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경우도 많다.

모든 소유의 유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므로 고난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갈 돌파구가 열렸다면, 이제는 그 돌파구를 통해서 마음껏 달려가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 한가지 있다. 이 또한 욥의 고백이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 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욥기서 1:21) 무슨 말인가? 태어날 때 아무 것도 가져온 것 없고 죽을 때에도 아무 것도 가져갈 것이 없으면 수치로 따지면 제로다. 아무 것도 없음의 상태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본전이다.

인생의 본전이 아무 것도 없음인데 무엇을 손해보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겠는가? 문제는 무엇을 손해봤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전이 원래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 잃어버린 것과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본전치기 생각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잃어버린 그 상태가 곧 본전치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두움의 굴레로부터 속히 빠져 나와서 창공을 향해 마음껏 날개짓을 하라.

만약 당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인생은 잃어버리거나 손해 본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성경에서 매우 파워풀한 말씀 구절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Though God slay me, I will hope(trust) in Him..."(욥기서 13:15) 아, 정말 얼마나 파워풀한 말씀인가? 죽이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무엇에 믿음의 고리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인격 자체에 믿음의 고리를 걸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전치기를 하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음의 본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라. 그러면 영혼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KAC의 데이빗 남 아웃리치 디렉터, 지난해 에세이 수상자 조이스 강 양, KAC의 수지 오 이사가 올해 시상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3년 전의 아픔 딛고 한인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4·29 폭동 기념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

한미연합회(KAC)가 4·29 LA 폭동 23주년에 맞춰 에세이 콘테스트 시상식을 4월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관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한미연합회는 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인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타인종 거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4·29 LA 폭동: 과거와 미래(The Past & The Future)’라는 주제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2015년 에세이 콘테스트에 대해서 수지 오 KAC 이사는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에세이의 수준도 예년보다 높아 심사위원들이 체감하는 데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 시상식은 단순히 시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4·29 폭동을 되돌아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세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이스 강 양은 “작

년 에세이 콘테스트에 참여하면서 LA폭동에 대해서 배우고, 내 자신과 미주 한인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의미있는 경험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콘테스트에 참여한 여러 학생들도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번 시상식에 참여해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이사에 따르면, 올해 시상식 행사는 워셔센터주민회의(WCKNC)의 후원으로 시상식에 앞서 4·29 폭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Clash of Colors’를 함께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오 이사는 “이 다큐멘터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교육적 목적을 두고 있기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감상에 참여하리라”고 권했다.

이 행사에 참가비는 없지만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참가 예약은 david@kacla.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PCA-CKC 제18차 총회 및 수련회 열린다

미국장로회(PCA) 내 한인교회협의회(CKC)의 제18차 총회 및 수련회가 올해는 뉴라이프선교교회(박영배 목사)와 나침반교회(민경업 목사)에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를 초청해 저녁마다 집회가 열리며 목회자 세미나, 총회, 사모 세미나, 관광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또, 별도로 EM 목회자를 위한 행사도 조영길, 민청, 빌리 박 목사 등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caia.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LA 온하늘교회 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

LA 온하늘교회가 설립된지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LA 온하늘교회는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LA 온하늘교회가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장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는 4월 26일 주일, 설립 3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예배

- 사회 : 연제선 담임목사
- 말씀 : 박성민 목사(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교수)
- 찬양 : 데니얼 뉴먼 교수(아주사 퍼시픽대학교 교수)

2부/음악회

- 그레이스 미션 콰이어(지휘:오위영, 피아노:김지환)
- 솔로 : 테너/오위영, 메조소프라노/조지영
- 바이올린 독주(피아노/Christine, 바이올린/Peter Bak)
- CCM Group "Audience of One" : Vocal/Hun Hur, Piano/Randy Kim, Percussions/Scott Pugmire, Upright bass/Key Kim



일시 : 2015년 4월 26일 (주일) 오후 5시
장소 : 1540 S. St Andrews Pl. LA, CA 90019
문의 : 818-983-9024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결과

누가복음 1:26-3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엘리사벳이 잉태한지 6달 됐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란 사람과 약혼해 놓은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혼례 풍습은 처녀와 총각이 약혼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식 결혼 예식을 드릴 때까지 부부와 같은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매여 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동침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간음죄를 지으면,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혼은 했지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부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가 지켜야 할 성적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금기시 되는 너무나 엄중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눅 1:28)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불쌍히 여길 가치나 이유가 없는 데도,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접으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별로 대단한 처녀로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키기 위한 여인이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평안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평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이런 인사를 듣게 되는가 하여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입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깊은 생각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되풀이해서 30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책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2.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

31-32절에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처녀에게는 앞서 감탄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 탄생하시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의 신학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제사라고 하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기피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용서 받기를 원하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용서 받기를 원하는 그 양떼의 입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이고 사명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양떼에게는 하나님과 양떼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짐승의 피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심판이 보류되게 하시는 효과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로 짐승의 피를 인하여 죄를 용서받는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실 그 때까지였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 이어온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구약시대의 속죄제사의 법을 따라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가 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릴 때까지 임시로 용서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임시로 용서 받아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의 전달을 피하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가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임시용서 받아 놓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죄 없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탄생 하신 것입니다.

3. 마리아를 끝까지 설득하시는 하나님

34절에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자신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몹시 당황하며 걱정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5절에 하나님의 영이 잉태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조물주이십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다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에 대한 무지로 하나님을 자주 불신하고,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처녀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피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 속에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잉태되게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36-37절에는 2차 설득이 이어집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잉태한 것을 예를 들어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실제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설득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창조주의 절대 주권으로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마리아에게 다가가셔서 자발적인 신앙에 의한 순종의 동의를 얻어내시기를 시도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헌신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으니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단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의 수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각오로 드리겠느냐는 헌신의 요구를 하십니다. 이런 끈질긴 설득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써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마리아 자신이 이 일을 인하여 어떤 이득이 오든지, 어떤 피해가 오든지 전혀 상관치 아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의 원하심에 의하여 내 자신을 송두리째, 이해타산, 속셈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내어 드림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 아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헌신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인 것입니다.

만일 그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믿음으로 헌신하라고 설득하는 데도 요셉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었다면, 예수님은 그 때에 세상에 오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늘나라 확장에 쓰이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때부터 그 인생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에 비로소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무딘 판단으로 손해 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되고 자신도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헌신의 성과라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기쁜소리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vis I-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증 앙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석사 전공)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공공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총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ju@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다국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한국사이버대학 정규대학 학위취득

남가주 한인 목사회에서는 한국 21개 사이버대학과 MOU 체결을 하고 빠른 기간과 저렴한 학비로 한국의 정규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선교학

단기 선교사 자격증 취득
부설 단기 의료선교 훈련센터

단기 의료선교 도우미 사역, 양의사/한의사/간호사 준비
간호보조 및 견학생 교육, 의료선교 사역을 훈련 받습니다

의료선교, 선교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
침, 뜸, 부항, 수기치료, 지압, 추나요법을 단기기간에 배워서
의료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담 및 문의

213-381-7755
213-381-7575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3921 Wilshire Blvd. #405-408, Los Angeles, CA 90010 (월서+그라머시)

담임목사 청빙

창립 38년을 맞이한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Ventura County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분(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3.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하여 요청 2부 (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
6. 최근 6개월내 실고 2회

제출마감일 :

2015년 4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내실 곳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821 Alta Vista pl. Camarillo, CA93012, djycorp@yahoo.com

기타 :

-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처음과 마지막은 서로 통한다. 로마서의 첫 부분이 복음으로 시작되는데, 마지막 부분도 복음으로 마무리 된다. 이 복음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이다. 다음은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복음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려놓았듯이,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복음은 우리 마음의 중립지대를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불신으로 배척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믿고 순종한 복음을 그는 ‘나의 복음’(롬 16:25)이라 부른다. 이 계시된 신비로운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 믿게 된 성도들도 변화시켰다. ‘믿음

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자의 믿음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것이다. 신자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허박국의 말씀은 신자의 믿음이 환란이나 영광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변치 않는 일관된 믿음의 반응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다. 둘째로, 믿음의 태도는 일관된 모습이어야 하지만, 그 분량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믿음은 성숙하는 것이다. 셋째로, 믿음은 ‘진밀함’의 깊이에서 깊어져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하여져야 한다. 믿음은 그 기뻐하는 삶에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으로서 은둔자의 자기 성찰이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이다. 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말씀의 뼈대를 수 없는 부분일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자. 나는 변함없이 일관된 믿음의 태도를 가져왔는가 또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나의 믿음 생활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누리는 진밀함의 정도를 더하고 있는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복음의 ‘깊은 강’에서 오늘도 사로잡혀 헤엄치기를 기도한다.

내던진 신발을 신어볼 때까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옆집, 앞집 이웃이 좋으면 얼마나 사는 재미가 날까 싶다. 그런데 필자의 앞집에 이사 온 사람은 필자가 아무리 반갑다고 인사해도 인사하는 순간 얼굴을 돌린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인사를 못 봐서 그런가 했다가 횡수가 거듭되면서 분명 의도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 보였다. 툇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을 돌리며 우리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이다.

4, 5살쯤 보이는 귀여운 남자아이 둘이 있다. 엄마가 인사를 안해서 그런지, 두 아이도 우리를 보면 경계의 눈으로 뺨히 쳐다보기만 하지, 그 흔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 같이 쓰는 드라이브웨이에서 아이들이 나와 놀기도 하고, 가끔 장난감 자동차도 길을 막고 있어서 치워 주기도 하며, 엄마와 아빠가 두 아이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평범한 가정 같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를 분체만체하는 것이다. 이제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려고 한다. 그냥 무시하고 살기 싫지만, 웬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어떻게 하

면 좋을까?

어제는 그 이웃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처음 접했을 때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인사한 죄(?)’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어제 기도하는데, 그 가정에 남다른 아픔과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다.

혹시 한국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한국 사람이 혹 날 닮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 모를 아픔 때문에 타인 기피증이 있든지,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서 이웃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할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것은 아

닐까? 단순히 우리를 향한 ‘신발 내던짐’이 더 깊은 내면의 아픈 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도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put yourself in other's shoes)는 영어 표현이 생각난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그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격언도 생각난다. 신발에 못이 박혀있는지, 무쇠로 만든 무거운 신발인지, 너무 작아서 물집이 생기게 하는 신발인지, 그 내던진 신발을 잘 살펴봐야겠다.

아내에게 기회가 되면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자는 제안도 했다. 한국 음식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메뉴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의 인사를 받지 않고 또 고개를 돌리는 일이 있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리고 던져진 그 신발을 신어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닫힌 이웃의 현관문을 열어보겠다고 다짐해 본다.

실수



현순호 목사
실리콘밸리노인선교회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많은 나는 자주 혼자서 괴로워 하고 속상해 한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또 실수를 범한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다 실수했을 때는 스스로 자위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집의 나무가지가 옆집 담을 넘어 그 집의 부엌 창문을 가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나무 가지를 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기울면서 그만 땅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졌다.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옆집 부인은 내가 쓰레기 통에 절반쯤 빠져서 하우적 거리는 것을 보고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그의 남편을 불렀다. 그 곳에 쓰레기통이 없었으면 세멘트 바닥에 뇌를 다쳐 지금쯤은 코마 상태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한 번은 미국 그로서리 가게에서 나오는데 한 노인이 길을 물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길을 가르쳐 주고 나서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 순간, 그 노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헤매며 나를 원망했을까? 나도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말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자 꽃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는 한수 더 뜬다.

자기가 가게 남미계통의 직원이 저지른 실수 이야기다. 결혼식에 갈 꽃이 장례식장으로 가고 장례식에 갈 꽃이 결혼식장으로 가서 큰 소동이 벌어졌단다. 무엇이 다르냐고 묻자, 장례식 꽃은 흰 꽃뿐이고 ‘근조’라고 쓴 리본이 달려있고 결혼식에는 예쁜 꽃으로 장식돼 ‘결혼 축하’라고 쓴 리본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 양쪽 집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겠는가?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전에 장례식을 거행하고 바로 결혼식장에 들어선 목사는 집례를 하면서 마지막 축도에서 “여기 모인 조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라고 하자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축하객을 조객이라 불렀고 전 교인은 아멘 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더 큰 실수는 교회의 어른들이 평신도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일이다. 거룩한 십자가 밑에서 세상 사람들도 조심하는 막 말을 하며 뽀샤샤음

하고 사회법정에 나가는 꼴은 너무도 큰 실수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많은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난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세상은 묘하게도 실수를 통하여 성공하는 기회도 많다.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일하는 부부가 1불짜리 복권 3장을 구입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3불짜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중 한장이 1억 6천 여만불에 당첨되었다. 한 점원의 실수로 한 가족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다. 복권 당첨자가 실수로 판매원에게 고맙다고 얼마의 돈을 주었을까?!

Waterman의 경우다. 그는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어느날 큰 고객을 만났다.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데 펜의 잉크가 흘러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다. 세일즈맨은 미안하다고 백만사과했지만 손님은 불길하다고 화를 내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그때 세일즈맨은 너무도 아쉬웠지만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그는 결국 해냈다. 자기 이름을 따서 Waterman 회사를 만들어 성공자가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지나치게 고민하다가 자포자기한다. 어떤 사람은 가능한 한 실수를 줄이는데 치중한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오직 본인의 몫일 뿐이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방세환(20세, 한국)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 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 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미국)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민명자(65세, 한국)
일본 원자력 피해	산천성 뇌하수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허반신 마비, 간질, 정신박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토요타 유이토 2세(일본 제바) 090-9934-2333
자폐증	7세 남자아이 자폐증으로 셀라 케어 복용후 호전됨.	지민 엄마(미국) 616-822-4627
혈소판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100-400) 로 돌아옴.	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암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한계방광축출, 1개월시한셀라케어 1년 복용, 암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나카지마(일본 군마 대카사키) 080-3556-1951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약사임.	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 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검진됨.	빅토리아(59세, 일본 동경) 8180-1330-2069
취장	취장에 율혹,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이은선(미국 MI) 616-822-4627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러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함.	Eunice Park(미국) 213-604-1992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지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줄 아저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John Kim(미국)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Mr. Yoon(58세, 미국)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Petra(미국) 708-296-2085
반신불수 · 욕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물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박경숙 (82세, 미국)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Tomas Park (92세, 미국)
심한엘러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
비만 · 우울증 ·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Sam Yang(11세, 미국)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Mrs. Kwak(미국)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토요타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 필요없게 됨.	김인숙 213-760-5699

건강과 성경이야기 50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곳을 묻는다면 심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모두 중요하지만 심장만 계속해서 뛰어나면 다른 기관이 고장난곳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치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에 병이들면 어느날 갑자기 돌연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수있습니다. 심장발작을 일으킬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비만, 고혈압, 운동 부족, 당뇨병, 스트레스,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응급 처치가 조금만 늦어져도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들을 꼭 기억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① 가슴 가운데가 조이듯 아프다 (흉통이라고 하죠) ② 숨이 차다 ③ 평상시 관찮은데 운동을 하니까 통증이 생겼다 ④ 심장마비 전 단계라고 불수있는 통증이 지속된다 ⑤ 통증이 심해졌다 탈해졌다 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장에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은지를 잠시 성경말씀을 살펴보면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두곳을 보겠습니다. 사두엘상6장1절로 12장은 이스라엘 첫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빼앗기게 되었는데, 빼앗은 언약대로 인하여 블레셋 민족에게 재앙이 생겨서 언약케를 이스라엘민족에게 돌려주려는 내용입니다 1절로 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 2.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분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3,4,5절은 생략하고 6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멩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젃나는 소 들을 끌다가 수레를 소에 매우 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6.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하고 7.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줄 알리라 8.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젃나는 소 들을 끌다가 수레를 매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의 궤와 및 금궤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으니 12.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니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 가니라 보통은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를 떼어 놓으면 어미소가 길을 가지않거나 어린송아지가 있는곳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어미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로 향하여 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23장마가복음11장누가복음 19장28절~3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예루살렘이 아닌곳에서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31.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물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대로 만년지라 33.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를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34.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35.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겂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36.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겂옷을 길에 퍼뜨려 이 부분에서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사람이 등에 탔다면 필적 뛰면서 야단이 났을텐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조용히 순종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다는 기록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필요한것을 구하여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것이 심장질환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난곳을 찾아내어 고칠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몸은 아픈곳을 찾아내더라도 완치할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검사를 해서 몸을 괴롭게 하지마시고 다음의 방법대로 하시면 몸이 편안해 지는것을 스스로가 알수 있을것입니다.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고, 혈액순환은 맑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때 생긴다는 것인데, 맑은 혈액은 땅 기준을 먹은 식물을 드시면 3일과 7일동안에 혈액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알수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께 권하여드렸고 모든 분들은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병에 걸렸든지 또는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이고 땅기운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 입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팔)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통일, 소망 잃은 청년들 다시 세우는 기회로”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서울은현교회서 통곡기도회 개최



북한 인권을 위한 통곡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실무대표 손인식 목사)이 19일 오후 서울은현교회(담임 최은성 목사)에서 '2015 통곡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최은성 목사의 환영과 초대 말씀, 영상 시청, 통곡기도, 간증, 손인식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최은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며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여리고 성에 금이 가게 만들고, 거목을 단 한번에 쓰러뜨리는 도끼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인식 목사는 ‘당신의 통일입니다’(시편 126:5-6)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설마 통일이 오겠느냐”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일이 늦어지길 바라는 이들도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주신

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마”를 뿌리쳐야 한다. 믿음은 설마를 뿌리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통일이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민족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이 땅에 소망을 잃은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 이민복 선교사(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가 ‘통일비용’에 대한 의식으로 통일을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를 지적하며, 통일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들을 언급했다. 또 강철호 목사(새터감리교회)와 이소연 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가 간증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전쟁 없는 통일과 한국교회의 깨어남’,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는 것’,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 통곡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정통교회와 학원가 훼손 말라”

7개 교단 이대위원장, 이단들 공격에 공동 대처할 것



참석한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들은 이단사실로 정통교회와 학원가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연합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한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이대위원장들이다.

이들은 “정통 기독교 교단들과 여러 대책위원회의 강력한 활동으로, 최근 한국 기독교 이단 사이버들의 동향은 그 근거를 대도시에서 중소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교묘

하게 미혹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하여 ‘위장 교회, 위장 세미나, 신학원, 인문, 문화, 선교,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교회와 가정의 분열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들은 이단대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가, 또 회심자들에 대하여 예배 방해, 집회와 시위, 납치, 협박, 폭행, 미행, 고소와 고발, 방화 등의 행위를 스스로없이 자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신적·물질적·목회적인 피해를 극심하게 입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허석수 기자

“대대교회 부흥, 장병 눈높이에 맞는 말씀사역이 핵심”

제2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 열려



제2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미래군선교네트워크

20대 초반의 장병들을 위한 위문 공연, 이벤트 등은 복음전도의 접촉점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장병들의 마음 속 깊이 전달되고 공감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결국 군선교의 핵심 전략인 ‘대대교회의 부흥’은 설교를 통한 말씀사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 장병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설교 노하우와 우수 설교 사례들을 공유하는 제2회 미래군선교네트워크 세미나가 20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려, 군선교 사역자들의 관심을 끌

었다. 이 자리에는 대대교회 전담 선교사를 중심으로 교단 군선교사 회 지도자, 군선교 후원교회 목회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장병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김태일 계산교회 목사가 세미나 주제로 주제강의를 발표하고, 김종천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군종목사가 ‘장병들에 맞춘 테마 설교와 예배 소개’, 손준철 11사단 군종목사가 ‘효과적인 장병 설교 작성법’을 각각 소개했다. 20여 년 동안 인근 인천지역 대대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

문공연 및 예배, 후원사역을 해 온 김태일 목사는 이날 이상적인 설교의 조건과 방법론 등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이상적인 설교는 믿음을 더해주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설교”라며 “설교 들은 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생겨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천 군종목사는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고민하여 이처럼 예배를 크게 3가지, 곧 재미, 감동, 복음에 포인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은 절대로 군선교는 그냥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방법,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에서 탈피하여 오늘 이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협소한 장소와 건물 노후로 장병들이 예배 드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무대교회의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를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한국교회연합

탁구대회 열고 교단 화합 도모



목회자 탁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주최한 제 1회 한국교회 목회자 탁구대회가 20일 오산시민회관 체육관에서 진행돼, 스포츠를 통해 교단 간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대회에는 예장 통합과 합동, 기성, 기감 등 6개 교단 200여 목회자가 선수로 참가했다.

양병희 목사는 김춘규 사무총장이 대독한 대회사를 통해 “한국 목회자 탁구대회는 단순한 운동경기가 아니라 탁구를 통해 소통하고 일치하는 뜻이 있다”면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페어 플레이 정신으로 경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88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남규 전 국가대표 감독이 참석해, 간증을 겸한 축사를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 감독은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셨다”며 “모든 영광과 감격의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소망 컨퍼런스

2015년 제3회 미주 ILP

RE-CALLING THE GOSPEL

주제: “다시 복음으로”

강사: 박종렬 목사 / 이 조나단 목사 <small>(서울 조아이스교회 담임) (하나 크리스찬센터 담임)</small> 정종원 목사 / 최경욱 목사 <small>(현 관이 있는 자유라미, 아이영교회 담임) (또 감사 선교교회 담임)</small>	일시: 2015년 4월 27일(월) 8:30am-5:30pm 장소: 또 감사 선교교회 1440 N. Spring Street Los Angeles, CA 90012 Tel. 323.225.9191 / www.ttokamsa.com
--	---

참가신청 방법

1. 신청서 다운 : www.ladchome.com (LA 디사이플교회) 2. 신청서 제출 : papyrusnam@gmail.com (LA 디사이플교회 남종성목사) 3. 신청 마감 : 4월 24일(금) 자정까지 4. 신청 자격 : 55세 이하의 담임목사, 성도수 100명 이하의 교회	5. 정원 : 50명 6. 모국 방문 : 당일(27일) 10명 추천 비행기표 \$500, 한국 체류경비 지원 7. 문의 : ILP 미주본부 남종성목사 (C. 562-305-4350) LA 디사이플 교회 홈페이지 참조 www.ladchome.com
---	---

주최: ILP(I Love Pastor) 미주본부 213-384-3356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침례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회(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일(일)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최승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직접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바치는 교회(마:5:45)
1. 민족을 넘어 2. 신앙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springs.onmam.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교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 sunhanchurch.com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양성령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사람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베이 지역

김진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3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EM)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일양성령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양성령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양성령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배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오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6:00
H.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령 오후 7:00
주일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양성령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호년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후 6:30 (토)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금요일양성령 오후 8:00
오후 12:00 (본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금요일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일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희 역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노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앞줄 맨 왼쪽 정대영 목사(직전 노회장),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종태 목사(신임 노회장), 왼쪽에서 세번째 정익수 목사(뉴욕총신대학교 총장),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한상흠 목사(신임 부노회장) 등이다.

예장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열려

신임노회장 김종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가 14일 오전 뉴저지 포트리 소재 동산중앙선교교회(담임 김종태 목사)에서 제76회 정기 노회를 개최하고 김종태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동산중앙선교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과 퀸즈소망교회 설립 등의 청원 안건들을 처리했다.

임원 선거 결과 부노회장 한상흠 목사, 서기 정영민 목사, 회록 서기 권영길 목사, 회계 변병두 장로 등이 선출됐다. 이날 노회는 정대영 목사(노회장, 퀸즈동부교회 담임)의 사회로 1부 예배에 이어, 2부 성찬식, 3부 회부처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노회에서는 동산중앙선교교회의 교회 명칭 변경 건과 정영문 전도사의 퀸즈소망교회 설립 청원 건 등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전도사 고시 청원 건과 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정익수 목사의 해외총회 헌의를 위한 청원 건 등이 다뤄졌다.

뉴욕노회는 오는 5월 18일(월) 오후 4시에 뉴저지 소재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소속한 한국노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김대원 기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40주년 기념 부흥성회에서 강사로 선 김한요 목사

“하나님 나라 확장은 믿음으로”

김한요 목사 초청, 타코마제일침례교회 40주년 기념 부흥성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21일까지 김한요 목사(베를린인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 전도 부흥회를 개최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 보며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앞으로의 40년을 시작하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시작으로 지역과 나라,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김한요牧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에 이끄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찬양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로 독려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40주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의 다리 역할과 이인 사회의 각 세대를 연결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회와 세상을 다리 놓으며, 문화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각 다민족들에게 다가가며, 사회와 문화, 세대, 민족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리를 놓고 영혼을 구원하며 양육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온 성도가 다짐했다.

PCUSA 서북미 한인교회 협의회 “교단 동성결혼에 대한 성명서 발표”

PCUSA 미국장로교 서북미 한인교회(이하 KPC)는 성명서를 통해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함으로써 소속 한인교회들이 많은 우려와 아픔 가운데 교단을 위한 통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본 KPC는 목회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과 그에 따른 교회 건물 사용에 대해서도 거절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KPC는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며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며, 본 대회 소속 한인교회들은 어떤 형태로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PC는 이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본 대회 소속 한인교회 목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를 거부하며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KPC는 교단 잔류 이유에 대해 “미국장로교 산하 모든 한인교회는 교단 내의 복음주의적 그룹과 연대해 미국장로교단의 회복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전도협회

그레함 목사, 美 복음주의 정치 참여 독려

대선 앞두고 적극적 출마와 투표 촉구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50개 주를 돌며 복음주의 교인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그레함 목사는 복음주의 교인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미국의 문제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복음주의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2세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그 어느 정당도 이 나라를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답이 아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호소했다.

이어 그레함 목사는 “내년에 ‘디시전 어메리카 투어(Decision America Tour)’를 50개 주에서 개최하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실천하고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며 “모든 교인들이 나와서 투표하고 성경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가 정치 선거에 적극적으로 출마하기를 바

란다”며 “각 지역과 주, 연방정부직에 도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고도 밝혔다.

그레함 목사는 현 버락 오바마 정부 이래로 미국의 세속주의화와 영적 쇠퇴에 대해 자주 비판의 목소리를 내 왔다. 그는 앞서 3월 오클라호마 주에서 개최한 복음전도 컨퍼런스(Oklahoma State Evangelism Conference)에서도 오늘날 미국에서의 세속주의를 지적하며 “미국이 세속주의자들에게 점령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의 종교자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는 “미국은 변했고 이제 우리도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는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끄는 세속적 사회에 살고 있다. 세속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느긋이 앉아만 있었던”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에 대처하는 것”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영성공회 수장 “IS에 군사적 조치 필요해”

IS는 심각한 악, 수백 년 지켜온 가치 위해 싸워야

영국성공회의 수장인 저스틴 웰비(Justin Welby)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슬람국가(IS)를 ‘심각한 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19일 리비아 IS 대원들이 약 30명의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동영상 공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웰비 대주교는 전날인 18일 이집트를 방문해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만나, 지난 2월 IS에 의해 희생된 21명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그런데 하루 뒤 IS가 또 다른 살해 영상을 공개한 것이다. 이 영상에서 희생자들은 ‘적대적인 에티오피아교회에 속한 십자가의 숭배자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웰비 대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IS가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한다. IS를 지지하는 이들도 조금만 떨어져서 본다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 수 있

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박해에 있는 이들에 대해 우리의 등을 돌리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 해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군사적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웰비 대주교는 “각각의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도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그들은 사도 바울 이전부터 존재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독교인들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수백 년을 지켜온 가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다. 때로는 여기에 국제적인 규모의 군사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웰비 대주교는 지난해 10월 잡지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중동의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혜진 기자

유럽 밀입국하려는 아프리카 난민들

100만 명 이상 대기 중

유럽 대륙을 향하던 난민선이 난파돼 숨진 난민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대기 중인 난민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유럽연합(EU) 국경관리청이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그리스 앞 남동부 로도스 섬 인근 해상서 난민 950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해 어린이와 여성 등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조난 신고를 받은 이탈리아와 몰타 국경수비대가 구조에 나섰다. 28명만 구조된 상태.

이번 어선 전복의 사망자까지 집계하면 올해 유럽으로 밀항하려다 숨진 난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많은 1650명에 달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탈리아와 몰타 국경수비대는 리비아에서 난민 100만 명이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대기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파브리스 레제리 EU 국경관리청 청장도 이날 북아프리카의 치안 악화로 대기 중인 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 메일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리비아 도시 시르테와 데르나를 장악하고 리비아 곳곳에 소규모 거점을 두는 등 리비아 내 IS의 세력 확대가 난민의 급증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IS가 지난 주말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 30명을 집단 살해하는 동영상 공개된 가운데 당국은 그 살해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들은 유럽으로 가려던 난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레드만 후세인 에티오피아 정부 대변은 살해된 기독교도들은 난민이었다며 이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에게 위험한 경로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O.C. / 엘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아래(한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래(한글)예배 오후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 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l)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박일룡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HTHEM.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일기도회 수요일 저녁 8:00 분당 금요일 저녁 8: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늘옥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4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일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4부 청년대회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 새벽 행사/기도회 새벽 6: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30 교목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김용철 담임목사 엘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714)309-7551 Pastorykim@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성령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목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일예배 7:3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아래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홍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 성경이 예배: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11:45 AM Adult Service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 7:20 PM(성령 66관객별칭성경공부) 새벽예배: 5:30 AM (화-금) 6:30 AM (토)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의 선행을 함으로 변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선교사들이 모이는 본당(2층)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등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연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유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아래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어유일예배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분당) 주일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일성령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이슬람 세마나: 매일 첫째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월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화요일예배 오후 8:00 화요일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성경학교 오후 7:30 목요일성경학교 오후 8:00 목요일성령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영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주혁로 목사 성경적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p>프로모션 A</p> <p>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p>프로모션 B</p> <p>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p>	<p>프로모션 C</p> <p>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p>
--	--	--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을,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는데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타린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삶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그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께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포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amgreensolutions.com

엠그린의 '닥터 솔라'가 전기값 95%, 물값 30%를 한번에 줄여 드립니다!



솔라시스템의 공급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는
엠그린-닥터 솔라

솔라시스템 설치전 설치후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 Power

www.ladwp.com

Electric Amount Due **\$537.72**

Electric Amount Due **\$23.38**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3054 KWH	\$537.72
Water Charges	3/4/14 - 5/5/14	66 HCF	\$322.98
Total LADWP Charges			\$ 860.70

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Charges

Electric Charges	3/4/14 - 5/5/14	152 KWH	\$23.38
Water Charges	3/4/14 - 5/5/14	45 HCF	\$215.69
Total LADWP Charges			\$ 239.07

Water Amount Due **\$322.98**

Water Amount Due **\$215.69**



California Lic# 947489

초기 설치비용 무료! (개인 Credit Score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시스템-엠그린

- 업체 유일, 30% 물절약 시스템 함께 무료 제공**
솔라시스템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에게 절수형 토일렛, 스프링쿨러 노즐 무료교체.
- 최고의 파이낸싱 프로그램 제공**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견적, 가장 유리한 파이낸싱 조건을 찾아 드립니다.
- Made in USA 제품만 사용하는 유일한 업체**
솔라패널과 인버터 모두 25년의 워런티 제공.
- LA CITY 선정 2년 연속, 에너지 절약 최우수업체**
인정받은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안정적인 시공과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

주 7일 무료상담: 1.844.900.1004

1367 Venice Blvd, LA, CA 90006 / sunny@amgreensolutions.com



솔라 세일즈 컨설턴트 모집

오직 '킹제임스성경' 만 성경인가?

킹제임스성경(KJV, The King James Version)의 번역 역사

영어성경이 나오기 전, 영국에서는 '고대라틴어성경'과 '별게이트성경'이 공식 예배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성경의 내용을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이에 점차적으로 일반 대중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긴급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일반 대중들도 성경을 직접 읽을 권리가 있다고 계몽한 별게이트 역의 대본인 윌리프영어역(英譯)성경(Wycliffe's Bible, 1380-1382)이 등장한 이후, 킹제임스성경(KJV, The King James Version)의 모태가 된 틸데일성경(1525-1535)으로부터 1611년 KJV가 나오기까지, 성경 영역의 역사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한 번도 이 흠정역(欽定譯, KJV)이 교회나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흠정역만이 성령이 역사한 유일한 역본"이라든가 "흠정역만 읽어야 구원받는다"는 등의 고집은 타당하지 않다. 한글흠정역이 나오기 전의 우리 한국 성도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마치 마귀는 성경조차 강력하게 변개시켜 흠정역 이전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논리가 된다면, 사단은 하나님보다 능하며 아주 무섭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 뿐 아니라 라틴어도 모르고 그 어떤 성경도 모르던, 흠정역 이전의 영어권 신자들도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는 괴상한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다.

1603년 제임스 1세는 청교도 지

도자 존 레이놀드(John Reynold)의 "성경에 오역(誤譯)이 많아 원전(原典)의 의미를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언을 받아들여, 54명의 왕실 작가들을 중심으로 흠정역성경을 준비하게 된다. 당시 레이놀드는 옥스퍼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코르푸스 크리스티대학(Corpus Christi College)의 학장이었다. 당시 제임스 1세는 칼빈주의자들이 보던 제네바 성경(Geneva Bible, 신약=1557, 구약=1560)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주교성경(The Bishop's Bible, 1568)도 국왕 자신이 주도한 새로운 성경으로 대체되기를 바랐다. 즉 흠정역(KJV)은 제임스 국왕의 사심(私心)이 일부 들어간 성경이었다.

이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해 1607년 54명의 왕실 작가들이 선정되어 케임브리지·옥스퍼드·웨스트민스터대학의 6개 팀이 참여하게 된다. 케임브리지의 두 사람이 역대상에 서 전도서와 외경까지를, 옥스퍼드의 두 사람은 이사야에서 말라기, 사복음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맡았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둘은 창세기에서 열왕기하와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를 할당받았다. 54명 중 주교성경의 개정 작업에 실제 참여한 사람은 47명이었다.

가능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문에 일치하도록 했고, 만일 틸데일, 매튜, 카버데일, 횃처치, 제네바 등의 번역본이 성경 사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교성경을 따르도록 했다. 사본은 하나의 사본이 아닌, 당시 사용 가능한 여러 사본을 근거로 삼았다.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 확인된 신뢰성 있는 사본들은 모두 참조하였다. 또한 완곡(婉曲)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원전의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내용을 충분히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난외의 주를 달지 않도록 했다.

새 번역본의 제3판은 1611년에 나왔다. 그 후 찰스 1세의 집권 기간 중 장기 회의에서는 소위 흠정역성경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1629, 1638, 1653, 1701, 1762, 1769년과 그 후 두 차례의 후기 재판에서 사소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마지막 3차 개정본은 옥스퍼드의 브레이니(Blayney) 박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이것은 1611년판과 비교할 때 약 75,000군데나 수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성서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KJV의 개정역(ERV, 1881-1885)은 1870년 캔터베리 종교회의를 거쳐 필립 샤프를 위원장으로 하여 완성된다.

이렇게 KJV도 단번에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번역된 책이 아니었다. 언어가 변천하고 새로운 사본들을 참조하면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참여하여 사소한 수정과 변경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흠정역성경을 유일무이한 성경이라고 너무 절대시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흠정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은 좋으나, 다른 성경은 모두 사단이 변개했다는 식의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한글흠정역은 초창기 급하게 제작되느라 문제가 많았다. 즉 한글 번역과 교정상 문제가 많았다.

성경번역의 의미

성경의 원본이 없다는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연구에 있어 늘 겸손해야 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알려준다. 물론 하나님은 사본만을 남기시면서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큰 오류 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다. 하지만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고, 바벨탑 혼잡 이후로 늘 변화해 왔다. 50년 전 사람들이 생각하던 오렌지족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렌지족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언어는 늘 생명체처럼 변신한다. 따라서 성경은 시대의 언어 변천을 따라 새롭게 번역될 당위성이 생기게 된다. 개역성경의 어투만 해도 우리 세대는 좀더 거룩한 말씀처럼 여겨져서 익숙하고 좋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어색한 어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개정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개역개정판이나 다른 한글 번역본들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역성서〉는 1910년 신구약 공인역이 완역(신약은 주로 외국 선교사들이 번역, 구약은 흠정역과 중국어 성서 참조)되자, 신명명 수입으로 한국의 언어가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평판 원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성경 개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12년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장로들이 하나가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여 25년이라는 오랜

각고(刻苦)의 기간 끝에 완성(1937)한 성경이었다. 해방 이후 1949년 새로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1952년 10월 교정판이 나왔다. RSV와 네슬-알란트판이 많이 참고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개역개정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든 섭리 과정을 무시하고 일부 사람들이 한글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것이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소치가 아닐 수 없다.

킹제임스성경이 좋은 성경이기는 하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주전 586)로 가면서 가져간 사본이 맞소라 사본으로 발전하며, 예수가 귀환하면서 바벨론에서 가져온 사본과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던 사본을 대조하여 원시 사마리아 수정본을 만들고,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한 고대 70인역 등이 발전하면서 구약이 완성되어 갔고, 신약은 알렉산드리아(애굽, 이디오피아 등)와 동방 지역(가이사라, 안디옥 등)과 서방 지역(이탈리아, 바티칸, 고을,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나타난 사본들이 남아 있다. 이들이 라틴어로 발전하고 영어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갔다.

제임스왕 흠정역(KJV, The King James Version)이 훌륭한 영역(英譯) 성경이기는 하다. 하지만 오직 KJV만이 바른 성경이고 다른 성경들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라는 식의 주장은 분명히 무리수가 따른다. 따라서 흠정역이 좋은 성경이기는 하지만 흠정역만 고집하는 것은 너무 편협된 신앙이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힐링칼럼

끝없는 고난과 부활의 꽃망울



강성연 대표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때로는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진다. 오래 전

에 지나갔으며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또다시 펼쳐지면서 불면증이 시작되기도 한다. 봄은 오다가 돌아갔으며, 새싹은 땅을 뚫고 오르다 다시 꺼져 버렸다. 삶의 등불도 꺼져 버린듯 세상이 캄캄해졌

다. 아, 또다시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또다시 새로운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우리들 인생에서 새로운 색깔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며 반드시 지나게 된다. 내 삶에도 늘 그랬듯이 당신의 삶에도 그럴 것이다.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날만 있다면 인간은 곧 교만해질 것이다.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다. 아프고 힘들어 쉴새 없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고난은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반드시!

내가 일하는 상담센터가 있는 여의도 도처에 벚꽃이 만발하고 축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봄비에 꽃잎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괜찮다. 아직은 더 많은 꽃잎들이 매달려 있는 벚꽃나무엔 봄 이야기들이 화사한 향기를 푹푹 날리고 있으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은듯 보였던 겨울 꽃나무에 어느새 꽃망울이 맺히더니 꽃송이들이 만개했다. 겨우내 맺힌 가슴 아픈 눈물 방울들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죽은듯 보였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상담실 안에서 늘 지켜보듯이. 꽃들의 기적 같은 부활.

죽어 있던 나무 같은 내 마음에도 봄의 등불이 켜지고, 깊은 치유가 일어났다. 누군가가 준 깊은 상처도 치유되어가는 중이다. 치유의 등불이 켜지고 세상엔 꽃잎이 향기롭게 흠날린다. 사람들이 내쉬는 호흡마다 상처의 입자들이 날선 꽃샘추위로 떠나기도 하지만, 또다시 봄꽃들은 부활한다. 새로운 계절 속에서 자연이 부활을 증거하고 꽃망울로 맺혔다가 연이어 활짝 피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았듯이, 고난당하는 당신에게도 부활의 꽃망울이 터질 것이다. 그리하여 아무리 고통에 허우적대는 나날이 한참을 이어간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부

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창밖으로 흠날리는 꽃잎들의 향기를 들이 마셔 보자. 그리고 아픈 마음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풀어내자. 그 순간 고난은 끝이 나고 고통으로 죽어있던 내면에 부활이 임할 것이다. 꽃들이 앞다투어 활짝 피어남은 우리의 고난이 끝날 것임을 꽃들이 증거함이다.

우리 생애 곳곳에 스며드는 잠깐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성숙을 이루길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불행하길 원치는 않으신다. 꼭 기억하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USCRC Pastoral Education (US 채플린 목회대학원)

USCRC Clinical Pastoral Education(CPE) programs provide an opportunity for ministers, seminarians and lay people to develop pastoral competency within a particular pastoral setting(usually a hospital, parish, hospice or retirement home). The CPE approach to training is based upon an "action-reflection" model of learning. Pastoral trainees function as ecumenical chaplains who provide pastoral care in assigned areas and use their experience in pastoral encounters as a basis for their learning.

USCRC CPE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pastoral identity and the growth of professional competence as a minister.

◆ Specific objectives of CPE are :

- To become aware of one's self as a minister and of the ways one's ministry affects people.
- To become a competent pastor of people and groups in various life situations and crisis circumstances and to develop the maturity to provide intensive and extens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utilize the support, confrontation, and clarification of the peer group for the integration of personal attributes and pastoral functioning.
- To become competent in self-evaluation and in utilizing supervision and consultation to evaluate one's pastoral practice. .
- To develop the capacity to utilize one's pastoral perspective and competence in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preaching, teaching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 To become aware of how one's attitudes, values and assumptions affect one's ministry.

1. 미군군목(육군,공군,해군,해안경비대) 예비역 및 현역 후보자 훈련프로그램
 2. 병원 원목 자격 취득과정 (CPE)
 3. 양로병원, 양로호텔경영학 과정
 4.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 (MAVNI) 지원자 시험준비반
- *유학생이나 각종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한 분(남,녀)들중에서 2년이 넘는 분은 소정의 시험을 통해 미군에 입대하고 영주권취득후 미군하사관이나 장교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상담 및 문의 310-502-9999 (박실장을 찾아주세요)

분교 : 151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 한인타운 분교 : 900 S. Westmoreland Ave, #303 LA CA 90006

USCRC Pastoral Education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성서의 이야기 기술

로버트 알터 | 아모르문디 | 326쪽

성경 문학비평 연구의 관심사를 구조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책이다. 저자는 성서 본문에 드러나는 말과 이야기, 등장인물, 전형장면, 핵심 단어 등을 파악해, 성서의 예술성과 교훈, 감동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다.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당시의 문학적 관습을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

김영석 | CLC | 224쪽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신 명령을 몸소 실천하고자 교정선교사역에 일생을 바친 저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사랑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폭력보다 강력한 능력임을 삶 속에서 구현했다. 지존파의 회심 이야기를 비롯해 갇힌 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간증은 박찬 사랑의 감동과 실천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의 온리갓

앤드류 머레이 | 브니엘출판사 | 208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해, 어떻게, 무엇을, 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 고전이 된 저서 <검손> 등을 쓴 저자는, 우리 신앙의 결핍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 온다고 진단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함을 강조한다.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라'고 촉구하는 책.



새가족 성경공부 어떻게 인도할까

김민정 | 생명의말씀사 | 184쪽

저자의 새가족 강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존 성경공부 교재들과 조금 다르게 가능하면 쉽게, 현장 이야기를 풀면서 성경적 진리로 이끌고자 했다. 인도자 지침서로 초신자에게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기신자에게는 무력한 신앙에 새로운 도전을 각각 전한다. 분당우리교회에서 3년간 검증을 거쳤다. 강의마다 활용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더해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REVIEW

“기도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

누구나 기도 응답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전략' 이 필요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영적 무기다. 그런데 그 무기가 녹슬고 무뎠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제대로 된 사용방법을 몰라 아무렇게나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구나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방법과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기도는 분명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

책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이 한 두 번 기도한 후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한다. 이런 경우 대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기보다

영적인 소극성과 흔들리는 믿음, 나아가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시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그녀의 딸은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말을 들더라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절규에 가까운 간구를 멈추지 않았기에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이다”며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이제는 한숨과 원망의 입을 다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에 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하기를 각오



실전기도
강은혜 | 두란노 | 320쪽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나 응답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응답

을 위해서는 기도와 간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후에 기도 대상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에 맞는 적절한 기도 방법을 분별한 다음, 영적인 간절함과 진지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는 이 책을 통해 기도에 대해 많은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도를 소개함으로써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내가 만난 여러 문제와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을 택해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일들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다.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은 금식기도를 했고, 자녀를 원했던 한나는 서원기도를 했다. 모세는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이들은 상황에 필요한 정확한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고 방법도 다르다. 어느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문제에 대한 올바른 영적 진단과 그에 맞는 적절한 기도 방법을 분별하고 간절함과 진지한 태도로 기도해야 한다.

이영인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메가처치’를 넘어, ‘불투명한 교회 미래’를 함께 넘어

‘생존’의 몸부림이 ‘성장’이라는 욕망이 된 그 때부터 한국교회는 아팠다

한국교회는 아팠다

단지 ‘메가처치’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아프다. 복음의 시작점에서 ‘생존’의 몸부림이 ‘성장’이라는 욕망을 뒤집어 썼던 그 때부터, 한국교회는 아팠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교회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도핑(doping)’을 계속 투여하고 있을 뿐이었다.

산업화의 촉발, 도시화에 대한 대안 없던 행정, 작은 지역 안에서 어지럽게 발전된 운송망, 그리고 최첨단 정보통신의 발달은 교회의 대형화를 위한 좋은 토양이 되었다.

이와 함께 유교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가족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타성’의 내면을 키우고, 이는 ‘경쟁’이라는 외면으로 드러났다. 브레이크 없는 ‘인간의 탐욕’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배, 정치적 이슈와 친(親)정부적 교회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메가처치’의 등장은 이미 예견된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메가처치 등장은 한국교회가 아프다는 증거였다. 단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메가처치와 메가처치 현상

병이 들었다면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야,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단순한 논리 아래 메가처치와 메가처치 현상을 바라봐야 한다.

메가처치의 등장은 여러 현상을 낳았다. 물론 메가처치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그 욕망의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단지 메가처치에 대한 외형적 논의를 넘어서서, 우리 내면의 어두운 속내를 들추어 낸다.

메가처치 현상은 사회병리적인 문제들과 함께하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듯 ‘크기’의 문제라기보다, 근원적으로 ‘현상’과 ‘경향’의 문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책은 사회학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현상들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린다.

“요약하면 첫째, 메가처치 현상은 지역교회가 이웃 교회와의 연합에 실패한 교회적 현상이다. 둘째, 메가처치 현상은 지역교회 내의 모든 신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패한 교회적 현상이다. 교회론으로 설명하면 메가처치 현상은 첫째로 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함으로써, 둘째로 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함으로써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공교회성’과 ‘공동체성’을



메가처치를 넘어서
신광은 | 포이에마 | 484쪽

상실한 교회가 사회의 여러 병리적 현상에 영향을 받아, 축적된 내부의 성장동력이 외부의 제재없이 표출된 것이 곧 메가처치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메가처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메가처치를 지향하려는 그 현상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곧 공교회성의 확보와 공동체성의 건강함을 대안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메가처치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흐르는 ‘성장제일주의 교회’, 즉 저자가 말하는 ‘욕망 교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거룩한 공교회성의 회복’을 통한 ‘우주적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과, 공동체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아나뱃티스트’ 사례를 언급하여, 그들의 공동체 인식에 대한 부분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실제 현상을 학문적 언어 안에 가두다

시작은 한국교회의 실체와 현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욕망을 꼬집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적 교회론’이라는 것이 학문적 분야에 갇힌 답답함도 지울 수 없다.

디트리히 분회퍼의 ‘관계적 교회론’을 꼬집어내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개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지만, 아쉽게도 그 대안은 이미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답변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던 것이다.

‘공교회성 회복’을 제시한 것이 교회의 속성 가운데 주어진 ‘보편적 교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도적 교회’의 한계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도 있다. 전자에 대한 질책

이라면 개인주의와 개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이 제시되는 듯 보이지만, 가끔 등장하는 ‘제도적 교회’에 대한 지적이라면 ‘제도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등장해야 했다. 즉, 메가처치의 반향으로 생겨난 ‘건강한 작은교회들’의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공동체성’은 ‘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확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흐름과 그 안에서의 ‘공감’과 ‘소통’이라는 주제가 더욱 밀도 있게 제시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공동체성’의 중요함과 ‘개인의 자유’를 모두 강조하려다 보니, 결론은 ‘성령의 의존’이라는 또 다른 명제로 들어가고 말았다.

사실 이런 답변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해답’이지만,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보여줄 수 없는 ‘답’이다. 저자는 ‘열린 마음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공동체가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또한 현장에서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실천적 지침과 대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갑자기 ‘내면적’이고 ‘통상적’인 주제로 급전환되면서, 필자는 ‘학문적 언어’가 갖는 일종의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다소 ‘고루한 답변’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든다.

‘메가처치’를 넘어서, 그리고 ‘불안정한 교회의 현실’을 넘어서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메가처치의 유지와 확산은 한국 사회에서 그 전망이 불투명하다. 곧 불어닥칠 ‘금융위기’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교회일탈’ 현상,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사회적 불안은, 단순한 메가처치 현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만의 위기가 아니다. 모든 교회가 가진 전반적인 위기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메가처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교회의 미래’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장성 있는 실제적인 대안과, 그에 대한 계속되는 실험, 그리고 대안적 모델의 등장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 전통과 오늘의 문화와의 대화를 시도하며 과감히 변혁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요구된다.

이헌주 목사
고양 너머서교회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아

기독교출판계 관련 서적들 출간



최근 출간된 세월호 관련 기독교 도서들

기독교출판계에서도 <세월호와 역사의 고통>에 신학이 담았다, <사회적 영성>, <결에 머물다>, <묻는다, 이것이 공동체인가> 등이 꾸준히 출간됐으며, 1주기를 맞아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를 비롯해 몇몇 도서들이 새롭게 나왔다.

먼저 포이에마의 <헤아려 본 세월>은 목회자와 신학자 등 11인이 함께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특히 기독교 신앙인에게 남긴 질문과 과제를 새기고자 엮은 책이다. 수익금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를 돕는 일에 기부된다고 한다.

김영봉 목사(와싱톤 한인교회)는 ‘세월의 영성을 통해 “고난당한 이에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세월호 사건을 통해 자신을 예위한 작은 세상이 붕괴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눈물과 고통과 회의와 불신의 방향 끝에서 진정한 ‘세월(世越·세상을 초월함)의 영성’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악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부담과 인간의 책임’을 논한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는 “우리는, 특히 그 희생자들의 유가족은 그 불행한 참사로 세상을 떠난 무고한 생명들의 피에 대하여 정의로운 신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라

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삶의 이타적 진정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동연의 <남겨진 자들의 신학>은 사건 이후 조직된 ‘NCK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세월호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 한국의 신학자들에게 ‘세월호를 바라보는 한국교회 신학’ 정립을 요청했고, 이에 2014년 11월에 1박 2일로

‘세월호 이후의 신학’을 구상한 결과물이다.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이 땅의 신학자들’은 이미 지난

해 12월 에세이집 <결에 머물다>를 펴냈고, 좀 더 신학적인 주장들을 모아 ‘세월호의 기억과 분노 그리고 그 이후’를 주제로 이 책을 출간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던진 신학적 키워드로 고통(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분노(예수의 저항)·기억(성령의 울음)·동행(함께 아파하는 교회) 등 네 단어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 단어들에 지닌 문제의식을 신학적 체계에 담기 위해 신론과 기독교론, 성령론과 교회론의 구도를 빌렸다.

이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조장되는 망각에 맞서 생명의 영이 주는 ‘기억’의 내용,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는 거룩한 ‘분노’의 원천으로서의 예수 사건, 시대를 함께 아파하며 ‘동행’해야 할 교회의 과제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총 24명의 학자들이 각자의 제목으로 글을 썼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승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 (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재미과학자 승문기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병예방, 원인이상과 상관없는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미국특정업체 직접 가격 매입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SAMSUNG SCX SERIES SCX-3405W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s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닭볶고기 콩차구이 오로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피게 함박스테이크 코다리찜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밥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개월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Sa-Rang Community Church Holds Annual Teaching Conference for Education Staff

BY RACHAEL LEE

Sa-Rang Community Church, located in Anaheim, CA, held a teaching conference for church staff in the education department on April 18, at Sa-Rang's Kingdom Dream Center (KDC). Some 250 staff from both Korean- and English-speaking departments were present, and four speakers were featured: Justin Suh, the CEO of Compassion Korea; Linda Pyun, who formerly taught education at Azusa Pacific University; Sang Nathan Yun, from Yun Law Firm, Inc.; and Alice Lee Choi, who teaches at Fairmont Preparatory Academy. Though sessions were divided into two for Korean and English speakers, the same speakers were featured in both sessions.

Justin Suh, who also has a Ph.D. in Christian Education from Talbot School of Theology, shared four principles teachers can follow to change students' lives.

First, he said, teachers must teach with conviction. "God wants to touch our hearts first through the Word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uh said. "And every moment you spend with His people, take it as a divine moment that God wants to use to minister to each individual." Suh then added that the second element is to "teach with passion."

Suh expanded on the third point—to teach with preparation. He mentioned that there are five aspects of preparation: preparing your heart and mind; preparing the content; preparing the presentation; preparing the meeting place; and preparing the learners. Suh encouraged teachers to prepare in advance, even as early as Sunday night or Monday, and to spend the rest of the week asking God to make the lesson real in each teach-

er's life.

Finally, Suh said, "teach with love."

"It's impossible for us to be able to love them like Christ does," Suh said, "but we can pray each morning, 'I want to be Your little Jesus,' and ask God to help us to love them. Let us win the world for Jesus Christ by winning one soul at a time, by the ministry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lice Lee Choi and Sang Nathan Yun shared certain policies that employees of workplaces and schools are required to follow, and recommended them as guidelines for church teachers as well. Yun focused primarily on prevention of harassment, and Choi focused on safe teaching practices and keeping safe boundaries, especially with minors.

Linda Pyun, who also serves in Sa-Rang's family ministry, expanded on how to deal with difficult students. Pyun noted that, often, difficulties that arise in class might come from the teacher's personal issues. Pyun also cited Dreikurs' theory on children's misbehavior, which states that misbehavior may come from children's mistaken goals, such as wanting attention, wanting power, wanting revenge, or wanting encouragement.

"One of the effective ways that teachers can respond to these mistaken goals is to give attention to the child when they do something good, rather than when they're misbehaving," Pyun said.

Sa-Rang has been hosting teaching conferences for its staff for over 10 years. According to Pastor Jeremy Kwun, the director of Sa-Rang's education department, the church plans to begin opening up its annual teaching conferences to other churches starting next year.



(From left to right: Reverend Ki-Dong Kim, Reverend Ki-Hong Han, and Reverend Ezra Kang) Korean churches in the Orange County area will be observing the National Day of Prayer (May 7) together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to Come Together to Observe the National Day of Prayer

BY RACHAEL LEE

As the 64th annual National Day of Prayer (NDOP), which will be observed on May 7 this year, is approaching, Korean churches in the Orange County area have decided to observe the day together. This year, they will be gathering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located in Fullerton, CA, starting at 7:30 PM.

"We hope and pray that it will be a time in which we can pray fervently before our God," said Reverend Ki-Hong Ha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This is the time to seize revival," said Reverend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Kang noted that since Korean churches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Line in the Sand prayer meetings that have been occurring for several years on November 11, a "prayer fire" has been spreading throughout the Korean churches in the country, and noted prayer meetings

that have started in Seattle and Maryland.

Organizers also hope to invite political leaders to the May 7 event, and plan to have a portion of the prayer meeting allotted to interceding on behalf of governmental leaders. The prayer event will also feature topics of intercession including education, families, revival, repentance, church, culture, world missions, and Korea.

Korean American church leaders will also be leading prayer topics at the event, including Steve Choi,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hurch; Jeff Yoo, the high school pastor of the Church of Southland; Grace Kang, an alumnus of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GLDI), a spiritual training program of JAMA; and William Chung, the youth pastor of Thanksgiving Church.

"I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hrough which all of the barriers between the generations would be broken down, and that we would experience a oneness in Him as we

pray together," said Grace Kang.

The NDOP is an annual, national observance that has been taking place since 1952 on the first Thursday of May. The theme for this year's NDOP is, "Lord, Hear Our Cry," based on 1 Kings 8:28, in which King Solomon prays, "Hear the cry and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is praying in your presence this day."

In particular, governmental and faith leaders will be gathering at the Cannon House Office Building on Capitol Hill, at which, for the first time, a Korean church leader—Reverend Ki-Hong Han—has been invited to join.

According to Reverend Joshua Kang, the KM Young Adults Ministry Director of JAMA, Han was invited to join the meeting at the Cannon House by John Bornschein,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Task Force, after Bornschein heard about the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Korean churches in the Line in the Sand prayer meetings.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III: Finding Community in the Church, and Hoping for the Future

BY RACHAEL LEE



Pastor Michael Rix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at Church Everyday, located in Northridge, CA.

Pastor Michael Rix has been at Church Everyday, a Korean immigrant church in Northridge, CA, for over 9 years now, and has been serving specifically in EM for almost two years. But the thing is, Rix is not Korean.

Rix is half Chinese and half German. But, he says, church members often forget that he's not Korean. It's a result that's come from the effort he's made to learn the traditions, culture, and language of the Korean church.

"You know, just the basic things like bowing and saying *amyong-hasaeyo* when I'm passing elders and KM staff," he said with a smile.

Rix started out not as the EM pastor, but simply as a member. He started attending Church Everyday because his wife—girlfriend at the time—was serving there as a children's pastor.

"Although we could've chosen to go to the church that I was attending at the time, we both felt that God was calling us to stay and serve at this church," he explained.

As Rix continued attending Church Everyday, he eventually decided to serve in the education department, first serving 4th and 5th graders; then college ministry; and finally the EM. He said that there have been many people along the way who inspired him to

serve in the EM, including the former EM pastor, Pastor Joshua Park.

"I came to Christ when I was 20, and at first I attended a pretty big church ... So at that time, I did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the pastor; he was just the guy who comes on stage every Sunday and preaches. But when I came to Church Everyday, I really formed a relationship with Pastor Joshua, and that was new to me. In our relationship, I saw his heart and vision for people and for the church, and that inspired me."

Rix added he also found a great community among the church staff, especially the Sunday school teachers.

"They really love on our family," he said. "The education department as a whole is unified in vision and heart—we all just want to make the gospel the center of the church."

The head pastor, Reverend Hong-Joo Choi, has also been supportive of him and all of the education staff, Rix said. He entrusts the ministries to the pastors and gives them freedom to have their own visions and direction for their respective ministries, which Rix said is "empowering" and "shows he has confidence in their ministries."

But more importantly, Reverend Choi has been a pastor to Rix

and his family. Whenever Rix and his family were facing significant circumstances in life, Reverend Choi always showed his support.

"When my mother passed away with cancer, he came to her funeral, and expressed his heart toward us. When our second child was born, he was the first to come to the hospital and visit us," Rix said.

Rix added he also chose to serve the EM because he noticed specific struggles that the EM has been facing, and he also has specific visions and hopes for the EM.

One of the struggles that the EM members face is taking ownership of their faith, Rix said.

"They need to take ownership of the gospel themselves. Many of them hav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gospel and think of it as a list of dos and don'ts. And that actually partly comes from Asian culture—it's a shame-based culture. But the gospel is not about performance, but what Jesus did for us on the cross."

Rix has a vision for the EM to be completely centered on the gospel itself. Several steps that he has been taking in hopes to fulfill that includes holding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s with the EM, and preaching the gospel during his Sunday sermons.

Going further, Rix also has hopes for the future of his church, and for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and it's one of the reasons he invests in the EM. He's investing in it for the future.

"What about the next generation for Korean Americans? What does that look like? Will my kids grow up in a healthy, thriving Korean church? I hope so. We need to leave a legacy behind, and have a long term perspective. We need to persevere and stick in it long enough to see the fruit."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Singspiration' Chapel at Biola to Be Led by Asian American Worship Band

BY RACHAEL LEE

Biola University, one of the most well-known Christian universities in Southern California, features many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worship and grow more deeply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cluding chapels, or worship services that occur school-wide five to seven times per week. These chapels are led by a team of chapel directors and six different worship teams that are on rotation throughout each semester.

One chapel in particular, called 'Singspiration,' occurs every week from 8 PM to 9 PM on Sundays, and resembles what most people would consider a 'praise night' or 'revival night.' Hundreds of people—both students and non-students—gather each week.

"We try to design a spiritual journey for those who come to the chapel, and we try to direct them into their personal conversations with God," said Isaac Lee, a senior at Biola who studies Music and Worship. Lee is a chapel intern who works directly under the chapel director, and he also co-leads one of the worship bands for chapel.

"We also try to represent all kinds of church worship dynamics," Lee added. He explained that there are diverse types of worship teams that lead chapels, including a band with string quartets, a folk/American band, a gospel choir, and a Latino band that even sometimes leads chapel in Spanish.

To note, Lee is Korean American, and his band members con-

sist of Asian Americans from various backgrounds, including Japanese, Korean, and Singaporean members. Lee describes his band to be a "more electronic and modern instrument type" of worship. Lee and his band will be leading worship at this Sunday's 'Singspiration.'

Each band that leads 'Singspiration' decides on a theme with the chapel director and interns, and Lee's band decided on this week's 'Singspiration' theme to be based on Isaiah 57:15, which says, "For this is what the high and lofty One says—he who lives forever, whose name is holy; 'I live in a high and holy place, but also with him who is contrite and lowly in spirit, to revive the spirit of the lowly and to revive the heart of the contrite.'"

"I started designing this set with the conviction that our generation has been trying to create intimacy with God synthetically, rather than receiving authentically," Lee said. "I feel like we tend to neglect the sovereignty of God, the kingship of God."

Hence, Lee said this week's 'Singspiration' will be highlighting four aspects of God's kingship, as a creator; a warrior who is sovereign over our battles; a shepherd; and a lamb.

"After that, we plan to celebrate the freedom that this king has offered us," he said.

'Singspiration' is free and open to the public, and takes place at the Chase Gymnasium within Biol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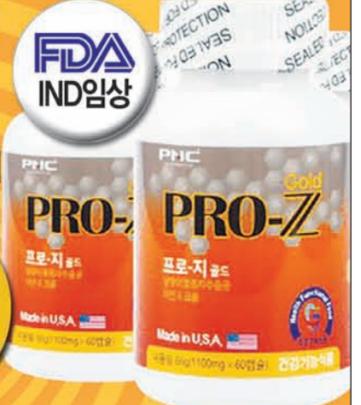
Isaac Lee (left) is the co-leader of the worship band that will be leading worship at Biola's 'Singspiration' chapel on April 26th. (Photo courtesy of Jason Tenandar)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